

40세 이후 1~2년 간격으로 진찰·유방촬영 필수

건강 바로 알기 유방암

김권천

조선대병원 내분비과 교수

직장인 A(여·34)씨는 우연히 샤워를 하다가 가슴 안쪽에 덩어리가 만져져 덜컥 겁이 났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해왔다고 자부하던 A씨는 인터넷으로 유방암에 대한 검색을 했는데, 마치 본인 얘기를 하는 것만 같아 밤잠을 설쳤다. 다음날 가까운 종합병원의 유방·갑상선센터를 방문한 A씨는 유방외과 전문의의 문진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양성종양'이라는 진단을 받고 겨우 안심할 수 있었다.

A씨처럼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고 해서 모두 유방암은 아니다. 유방에 발생하는 혹이나 종양 등의 덩어리를 통칭해 '유방 종괴'라고 하는데 유방 종괴는 유방 낭종,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종괴와 유방암으로 통칭하는 악성종괴로 나눌 수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암=유방암은 2020년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린 암이다. 국내 통계 또한 중앙 암 등록 본부에서 2020년도 발표한 2018 국가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유방암의 발생빈도는 20.5%로 여성암중 가장 많이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방암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암 통계결과에

10년간 유방암 발병률 지속 증가
서구화된 식습관 환자 연령 낮아져
유두 분비물·피부 변화 살펴야
수술·방사선·항암·호르몬치료



김권천 교수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1999~2018) 유방암 발병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암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환이지만, 유방암의 경우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위험도가 낮은 암이다. 이에 한국유방암 학회에서는 ▲30세 이후 매월 유방 자가검진 ▲35세 이후에는 2년 간격으로 의사임상검진 ▲40세 이후에는 1~2년 간격으로 전문의 진찰과 유방촬영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자가 검진에서 멍울이나 혹 등의 이상 증상이 발견된다면 유방 전문의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검사나 수술=유방암이 발생했을 때는 덩어리가 촉지되는 것 외에도 다른 여러 증상이 확인될 수 있는데 유두의 분비물, 피부의 변화 예를 들어 패인 곳이 생기거나 우둘투둘해지는 경우, 한쪽 유방의 상대적인 크기 증가 등이 발생 가능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유방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유

방 검사는 유방 촬영술이 우선 시행되는데 유방 촬영술은 만져지지 않는 초기 유방암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이므로 증상을 보이지 않는 여성들에서도 선별 검사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여성들은 유선 조직의 양만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조직의 양이 적은 치밀 유방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치밀 유방의 경우 유방 촬영술 이후 초음파 검사도 병행해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방암으로 진단되게 되면 전신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고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해 수술 및 추후 치료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진단된 유방암의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적 절제이다. 유방암 수술은 유방의 절제 범위에 따라 전절제술 및 부분절제술로 나뉘게 되며 이는 암의 크기, 위치와 환자의 유방 크기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최근 유방암 발병 연령이 젊어지고 있어 유방암 수술에 대해 치료 성적뿐 아니라 미용적인 측면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암세포를 제거하면서 환자의 가슴을 최대한 보존하는 '유방 보존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유두에 종양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선행 항암치료 후 유두 하 동결전면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유두를 보존하는 '유방 보존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과거 유방암 수술은 병변을 포함한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환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분 절제술'이나 '유방보존술'과 같은 가능한 한 수술 범위를 최소화 해 미용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수술 방법이 전체 유방암 수술의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주를 이루고 있다.



30대 여성이 조선대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유방촬영을 하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수술 후 치료와 관리=유방암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 후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 표적치료가 있으며 이는 환자의 나이, 몸 상태, 유방암 조직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으로 시행하게 된다.

유방암 환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발병률이 급증한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서구화된 생활 환경과 식습관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방질과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로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도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함유한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유방암 환자들이 수술 후 재발을 가장 많이 우려한다. 수술 후 5년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방암을 치료한 환자들은 유방외과를 방문해 꾸준한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암병원 건립'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화순전남대병원 벤치마킹

신명근 원장-우즈베크 보건장관 논의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암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 중인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 벤치마킹에 나섰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일 오후 하지바예프 아브두하킵 장관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대표단이 병원을 방문해 신명근 원장과 '암 전문병원 건립 우호협력 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수도 타슈켄트에 고난도의 암 치료 및 수술이 가능한 암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하고, 보건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암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벤치마킹 중이다.

대표단은 하지바예프 장관을 비롯해 서비로프 올 루그베크 보건부 차관, 아지조프 아브둘라 보건부 차관, 바바예프 나스룰라 건설부 차관, 툴라사이호프 미르자골리프 국가암과학센터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신 원장과 대표단은 아시아 대표 암특화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의 병원 건립 및 의료 기술·



신명근 화순전남대병원장과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하지바예프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장관이 지난 3일 화순전남대병원 회의실에서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경험 등을 공유하며, 암 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우즈베크 보건부는 이날 의학교육과 치료, 바이오메디컬 연구인력 교류 등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3자 우호협력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화순전남대학교병

원 방문후, 의료산업센터들이 밀집되어있는 광주 테크노파크 2단지에서 위치한 융합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택림 센터장은 대표단에게 센터 투어를 통해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의료부품 연구개발 현황과 의료기기 제조 시스템을 소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밝은안과21병원, 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지정

3주기 연속 인증...안과전문병원 4회 연속 지정도

밝은안과21병원이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3주기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해 의료서비스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엄격한 평가를 거쳐 인증을 진행한다.

밝은안과21병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나흘 동안 전문조사단이 방문해 환경 안전, 감염 및 의약품관리, 진료 과정, 시설 및 환경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진행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이로써 밝은안과21병원은 2013년 1주기, 2017년 2주기에 이어 3회 연속 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돼 명실상부한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과전문병원임을 입증했다.

밝은안과21병원 윤길중 대표원장은 "의료기관 인증병원으로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밝은안과21병원이 되겠다"며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병원 임직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한편, 밝은안과21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 안과전문병원에 4회 연속 지정되는 등 안과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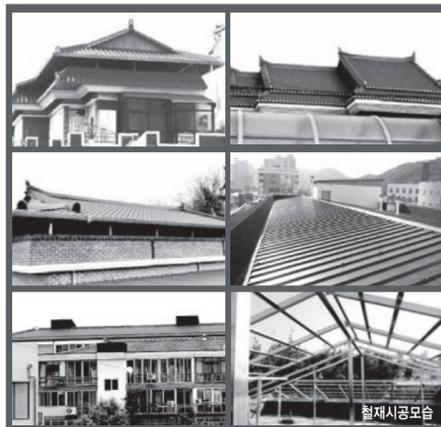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